

● 수증 그룹간 치은염 및 치태지수의 재현성에 대한 연구

정경진 · 문익상 · 채중규 · 김종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은지수와 치태지수의 재현성을 알아보기 위해 48개 치아 주위조직의 염증상태를 촬영한 24장의 슬라이드와 치태 측정 상태를 알기위해 Erythrosin용액으로 염색한 36개 치아를 촬영한 18장의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전문의 수련의, 일반의, 치과대학 4학년 학생, 일반인의 다섯 그룹(각 그룹당 5명씩)이 치은지수 세가지와 치태지수 세가지를 2주간격을 두고 2회 측정 평가하여 그 자료를 통계 처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든 그룹에서 치은지수의 처음 측정치와 두번째 측정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일반의의 Loe와 Silness 치은지수($r=0.8227$)였고 가장 낮은 것은 수련의의 Ramfjord치은지수 ($r=0.5168$)이었다.
2. 치은지수의 처음 측정 평균치와 두번째 측정 평균치의 치아는 PMA지수는 전문의가 가장 작았고, Ramfjord 치은지수와 Loe와 Siness 치은지수는 수련의가 가장 작았다.
3. 모든 그룹에서 치태지수의 처음 측정치와 두번째 측정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일반의의 잔사지수($r=0.8564$)였고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학생의 잔사지수($r=0.4658$)이었다.
4. 치태지수의 처음 측정 평균치와 두번째 측정 평균치의 차이는 간이 구강위생지수 중 잔사지수와 Quigley-Hein의 수정된 치태지수는 일반의가, O'Leary의 치태지수는 전문의가 가장 작았다.
5. 치은지수와 치태지수는 전문의는 다른 네 그룹과 유의성있는 차이가 있었고, 수련의와 일반의 사이에는 유의성있는 차이가 없었고, 학생과 일반인 사이에도 유의성있는 차이가 없었다.

● 치주질환 이환 치근면의 처치에 있어 Air-Power Abrasive System에 의한 방법과 통상적인 치근활택술의 비교연구

정연인 · 김성조

치주 질환 이환 치근면의 처치에 있어 Air-Powder Abrasive System을 이용하는 방법과 통상적인 치근활택술의 효과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중증의 만성 치주염으로 발거된 47개 치아의 치은연하 치근면 96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실험 1군에서는 Jet Polisher를 이용한 처치를, 실험 2군에서는 통상적인 Gracey curette을 이용한 치근활택술을 시행한후, 1군에서는 처치 시간별 치근면 삭제량을, 2군에서는 처치 완료시의 삭제량 및 소요시간을 Point Micrometer와 초시계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고, 아울러 1군의 10초 및 15초 처치 치근과 2군의 치근면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ir-Powder Abrasive System으로 5초, 10초, 15초, 20초, 30초, 40초, 50초, 60초 처치시평균 치근면 삭제량은 각각 $24.8\mu\text{m}$, $49.9\mu\text{m}$, $102.1\mu\text{m}$, $152.7\mu\text{m}$, $166.8\mu\text{m}$, $178.3\mu\text{m}$, $203.7\mu\text{m}$ 였다.
2. 치근활택술에 의해서는 평균 $72.3\pm 29.0\mu\text{m}$ 가 삭제되었으며, 치아당 평균 소요시간은 3분 20초(\pm